

시간이 팽창할 때

When Time Expands

2025. 9. 30. - 11. 9.

김홍도미술관 2관

2025 Danwon Art Festival Follow-up Supporting Program for
the Selected Artist-Individual Exhibition for Seong Pilha
2025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프로그램 성필하 개인전

목차

10 전시서문
12 평론
 풍경과 세필
 김현주 독립큐레이터
20 시간이 팽창할 때
66 작가 인터뷰
70 작가약력
74 발행정보

Table of Contents

10 Preface
12 Review
 Landscapes and Fine Lines
 Kim Hyunju, Independent Curator
20 When Time Expands
66 Interview with the Artist
70 Curriculum Vitae
74 Publication Information

2025 Danwon Art Festival Follow-Up Supporting Program for
 the Selected Artist- Individual Exhibition for Seong Pilha
 2025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프로그램 성필하 개인전

시간이 팽창할 때 When Time Expands

2025. 9. 30. -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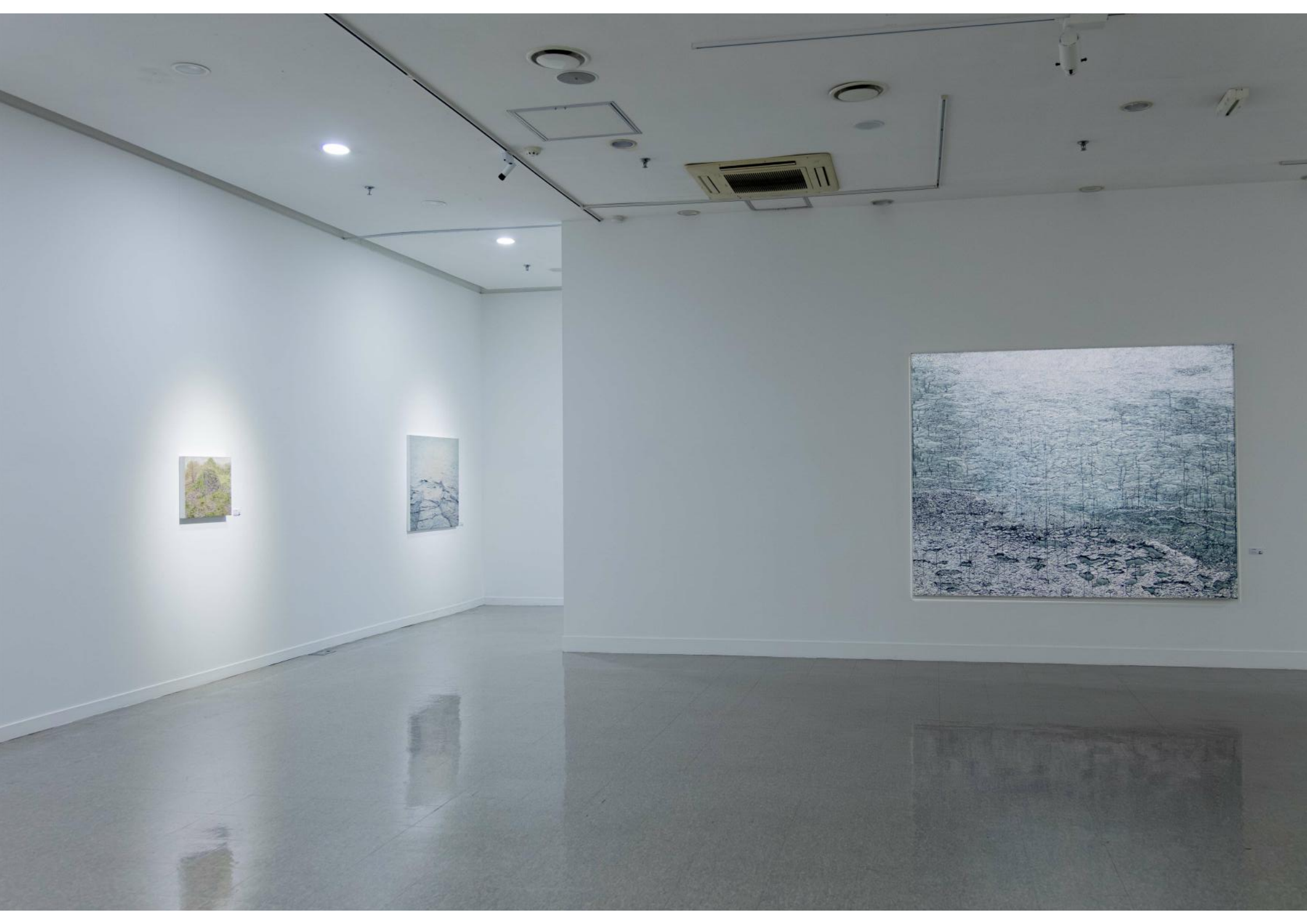
김홍도미술관 2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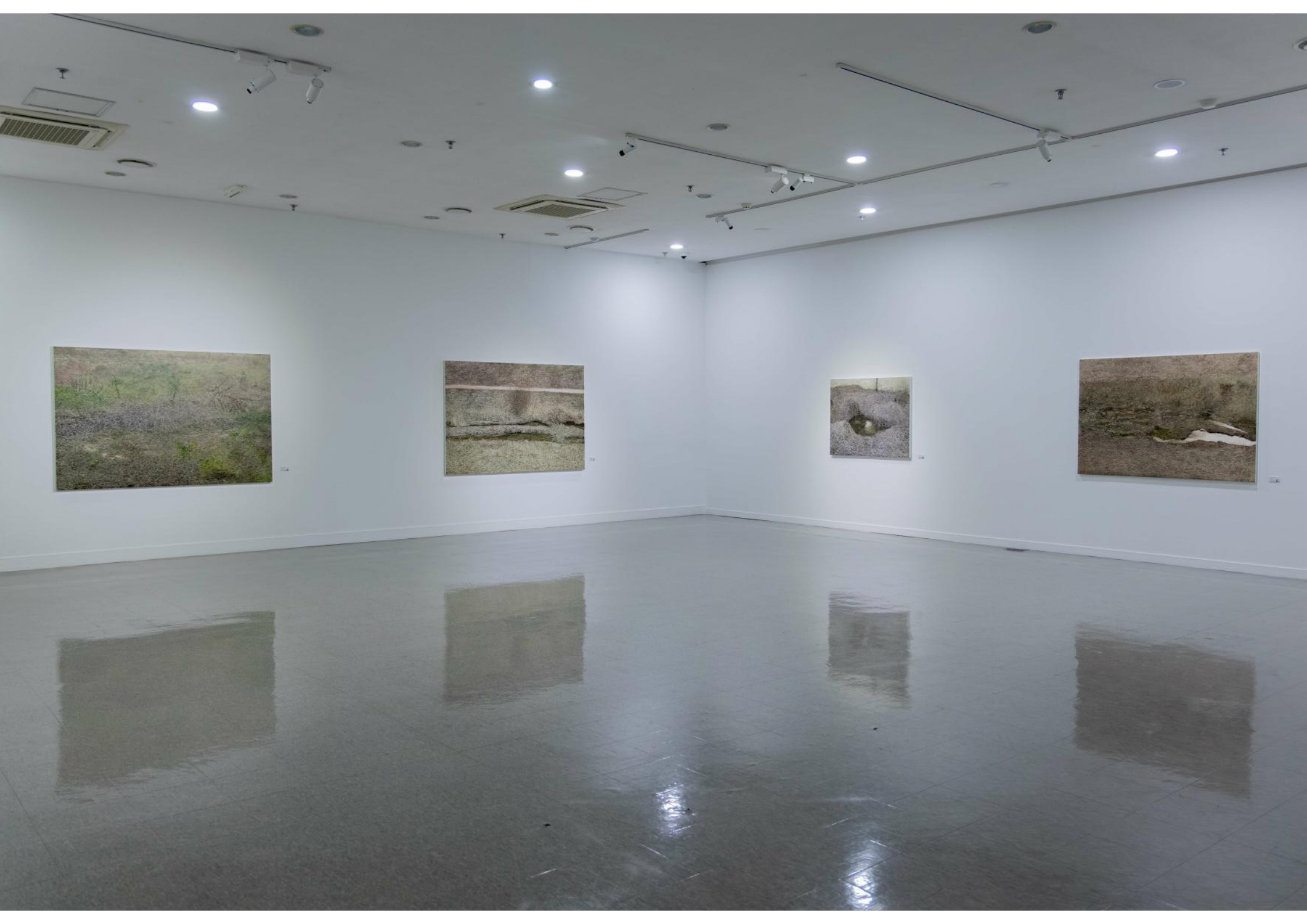
산산이와 (계산산문원역)에서는 시간 끝으로 450년 전으로 헤치고, 땅은 100년 전의 모습과
 똑같은 듯이 백년 산문원역의 풍경은 한결 같아 지어지고 있다. 2025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이후부터는 산문원역에서 출발한 바닷물이 차곡차곡 쌓여온 산문원역의 산문원역의 풍경이다.
 그 일출으로 풍경은 2025년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450년 전의 산문원역의 풍경이다.
 (시간이 팽창할 때를 선택한다.)

정말하는 수백년 이후를 살펴봐서 시간을 여행하여 4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450년 전의 풍경은
 바뀌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사람의 손길과 자연의 힘은 한결 같아 지어지고 있다. 2025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이후부터는 산문원역에서 출발한 바닷물이 차곡차곡 쌓여온 산문원역의 산문원역의 풍경이다.
 그 일출으로 풍경은 2025년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450년 전의 산문원역의 풍경이다.
 (시간이 팽창할 때를 선택한다.)

이런 관에서는 이러한 관의 풍경에서 여행하는 시간의 끝으로 돌아간다면, 450년 전의 풍경은
 바뀌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사람의 손길과 자연의 힘은 한결 같아 지어지고 있다. 2025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이후부터는 산문원역에서 출발한 바닷물이 차곡차곡 쌓여온 산문원역의 산문원역의 풍경이다.
 그 일출으로 풍경은 2025년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450년 전의 산문원역의 풍경이다.
 (시간이 팽창할 때를 선택한다.)







2025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프로그램 성필하 개인전 《시간이 팽창할 때》

안산시와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매년 단원미술제를 통해 작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선정작가 공모로 전환 이후부터는 단원미술제에서 배출된 작가들이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후속 지원에 다각적으로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2024년 진행된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 대상 수상자 성필하의 개인전 《시간이 팽창할 때》를 선보인다.

성필하는 주변의 이미지를 탐색하며 시공간을 재배열하여 회화작업으로 풀어낸다. 화면에 등장하는 풍경 이미지는 주로 도심의 외곽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계절성을 상실한 변두리 공간으로, 마치 현실 세계를 초월한 듯한 모습을 지닌다. 여기에는 특정 장소나 대상, 어떤 사건에 제한이 아닌 오랜 시간 반복되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에 순환을 고찰할 것으로 작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과 본질,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에서 ‘팽창하는 시간성’에 주목한다. 작가가 자연과 호흡하며 감지되는 낯선 질서, 구조를 다시금 배열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의 흐름에 단면을 담은 작업이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작가는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간의 흔적, 분절된 형상, 반복되는 행위들이 화면 안에서 충돌하거나 영키고, 겹겹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질서의 상을 만든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인 순환의 총체성을 담은 풍경으로 작가는 시간의 기록을 통해 사유의 공간으로서 전환을 시도한다. 그리고 나아가 무수히 반복되는 삶에서 각자 지나쳤던 일상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5 Danwon Art Festival Follow-Up Supporting Program for the Selected Artist-Individual Exhibition for Seong Pilha *When Time Expands*

The city of Ansan and the Ansan Cultural Foundation creatively carry forward the legacy of Kim Hongdo (pen name: Danwon) and, through the annual Danwon Art Festival, select and support promising artists to discover and nurture their talent. In 2015, the festival shifted from inviting submissions of individual works to holding an open competition for artists. Since then, the Danwon Art Festival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ovide continued support that enables selected artists to continue their creative practice. As part of these efforts, this year we present *When Time Expands*, the solo exhibition of Seong Pilha, Grand Prize recipient of the 25th Danwon Art Festival Artist Competition held in 2024.

Seong Pilha explores surrounding images and rearranges time and space and translating them into painting. The landscapes that appear on his canvases are often the outskirts of cities or peripheral spaces where traces of human presence are absent and seasonality has been lost, taking on a quality that seems to transcend the real world. Rather than documenting specific places, objects, or events, his practice reflects on the cycles of creation and dissolution in nature. Through this process, he engages with the phenomena, essence, and existence that emerge through this process.

This exhibition extends that trajectory by focusing on “temporal expansion.” Breathing with nature, the artist perceives unfamiliar orders and structures and rearranges them into works that capture cross-sections of different flows of time. Through a meticulous approach, he depicts varied aspects of nature in which traces of time, fragmented forms, and repeated gestures collide, intertwine, and accumulate layer upon layer, ultimately shaping images of new order. These landscapes embody the totality of cycles in which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mingle. By recording time, the artist seeks to transform it into a space for thought, guiding viewers to revisit the everyday moments of life that each of us has overlooked amid its endless repetitions.



평론 Review



풍경과 세필

김현주 독립큐레이터

2악장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종종 2악장에 귀를 기울인다. 1악장이 곡의 얼굴 전면이라 첫인상을 전한다면 2악장은 그 옆 모습 혹은 돌아선 뒷모습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 성필하의 작품을 보며 2악장을 떠올렸다. 1악장과 연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펼치는 어느 즈음에 그를 놓아 본다. 이번 전시는 대략 2020년부터 근작까지로 이루어진다. 전시에 포함되지 않은 초기 작품도 청하면 충분히 볼 수도 있겠지만 전시에 포함된 작품 위주로 대화를 나눴다. 그로부터 2악장을 연상한 건 악장의 기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떤 다음 무대(stage)를 향하고 있다는 인상에서다. 그는 다음 시간과, 다음 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그는 펍 능동태로 산다. 청각적 경험에 비추어 2악장을 풀어놓았다면, 시각적으로는 자전거를 탄 청년을 뒤따르게 된다. 다음을 고민하던 그는 그만의 속도와 나름의 기민함을 위해 자전거를 택했다. 셋길을 개척하기에 이만한 것이 많지 않다. 개척이란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화가의 일이라면 반드시 거창할 리만은 없다. 보이기에 화가의 과업이 웅색해도 과업의 끝에선 생각을 고쳐먹게 된다. 그리하여 나처럼 그의 작품을 골똘히 보고 거듭 생각할 이들에게 이 글을 건넨다.

분기점은 대략 2010년대 후반 무렵이다. 그는 그 자신이 주재했던 작업 시기로부터 벗어나 외부로 나갔다. 그는 자기가 보고 경험한 풍경의 속성에 자리한 ‘자기 연민’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과제로 삼았다. 청년 작가의 자기 연민과 포개어지는 시선이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나 그런 궁금증을 차치하고서 《시간이 팽창할 때》에 출품한 작품들이 바로 그 밖의 세계임을 분명해 보인다. 들어내고 비우고 버려낸 그 밖의 세계에 닿기 위해 그는 걷고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대부도와, 청주 무심천과, 춘천 어느 외곽을 누볐다. 물론 그에게 대부도, 청주, 춘천은 정관사의 세계가 아니다. 반드시 그곳이 아니더라도 보고 경험할 세계는 도처에 있다. 오히려 쟁점은 그곳이라는 그 장소 아닌, 그가 닿은 그 지점들이 다시 그에게 닿는 지점으로 맞물리기까지의 시간이었다. 그는 그에게 특별한 대상이 되는 것들의 이유를 소거해가는 방식을 택했다. 이 시간들이 대상을 “개인의 심상과 분리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으로 분했다. 자기 연민이 일차적 궁금증을 갖게 만든 어휘였다면, 책임감도 그로부터 촉발되어 내게 찍힌 말이자 태도다. 그는 화가로서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습관의 탈피를 말한다. 앞서 ‘그는 능동태로 산다’고 쓴 근거는 결국 그로부터 말미한다.

능동태의 삶

성필하의 작품은 외연 상 풍경이다. 그에게 왜 풍경의 자리에 ‘자연’이 대치되고 있는가 물었다. 풍경 또한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다. 화가에게는 풍경화가 그럴 테다. 화가에게 풍경의 뭇을 경시하거나 그 결과물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풍경이 왜 ‘자연’으로 표명되는가를 잘 옮겨주는 것은 중요하다. 이 지점을 이해할 때 그의 회화와, 회화에 붙은 이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간이 팽창할 때》 연작이나 <없는 계절> 연작과, 사이의 감각을 표명하는 작품들이 출현한 맥락을 깨닫는 단서가 된다. 몇 해 전 작품

비평 과정에서 평론가들로부터 얻은 지적은 풍경보다 자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때 조인은 성필하의 풍경에 깃든 순환의 요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그는 풍경과의, 자연과의 ‘만남’을 강조한다. 사실 만남이란 말은 참 폭넓고 때론 철학적이다. 그와의 대화에서 용기된 또 다른 단어는 ‘사변(思辨)’인데, 그는 사변을 인식하되, 배격하기 위해 명징히 다루고 있다.

그는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한 전략에는 능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골몰한다. 관찰의 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것들이 밀도가 생긴 거는 사실 그냥 제가 그만큼 관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이 밀도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것보다 제 그림이 더 선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때 관찰은 눈과, 화폭 앞에서의 연구 과정 모두를 포괄한다. 그도 그의 작품이 재현적으로 보임을 안다.² 그러나 연구상의 추상적 과정에 대해서 분명 인식하고 있다. 이를 “생물이 갖는 방향성”으로 변안해서 말이다. 풍경이 되기까지 생물로 대변되는 자연의 방향성은 거둬 화면에 없어지고 이지러지면서 쌓여 결과적으로 세필(細筆)로 정리된다. 이처럼 성필하 작품의 특이점으로 꼽히는 세필 또한 부가되는 요소이지 전면을 차지할 특징은 아니다. 성필하를 세필로 풍경을 그리는 화가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축약적 해석에 가깝다. 그래서 풍경과 세필을 전면화하지 않고 그에게 자연과 순환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 그에게 “자연이나 대상을 믿는지, 아니면 나를 믿는지”에 대해 짓궂게 물었을 때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는 현답이 돌아왔다. 익숙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하지 않으면서 이를 반복하며 쌓는 화가의 시간은 풀어놓기와 거둬들이기 사이의 절묘하면서도 지리한 싸움이다.

작게 본다는 것

그에게 <시간이 팽창할 때>에 관련해서 시간은 팽창하는 것인지, 팽창되는 것인지 물었다. 둘 사이의 격차는 미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주적 시간에서 한층 화가에게 허락된 정당한 지분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던진 질문이다. 화가에게 붓을 드는 시간은 시간의 되새김질과 동의를 이룬다. “불러오고, 읊어내는 과정을 거쳐 시간을 감각”하기에 <시간이 팽창할 때>는 그로 인해 시간이 팽창되는 과정이자 한시적 결과이다. 여기서 역설은 팽창이 늘어나거나 커지거나 발전한다는 방식의 양적 증대의 문제인가다. 신중한 표현이 거둬지는 대화에서 가장 그답다 잡아챌 순간은 “작업의 특징을 되게 작게 본다는 것”이다. 그의 의미에서 작게 보기란 곧 깊게 보기임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다. 깊게 보기 위한 집중의 시간이 팽창하여 그만의 미묘한 감각으로 전이되자 나오게 된 작업들이 사이의 감각을 낳았다. 그는 옛사람처럼 절기를 탔다. <춘분>(2024), <곡우>(2024)가 그러한데 그러나 춘분과 곡우로 분기되는 절기의 결정태를 회화에 담는 것이 의도가 아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자연의 사이클에 순응하면서도 잡게 되는 자연의 틈을 느끼고자 하는 것 같다. <없는 계절>(2022)을 거쳐 <흐름 속성 연구>(2023)를 다뤄보고 <between>(2024)을 지나 올해에 당도했다.³

바닷물을 그린 <물결살>(2025)은 현재의 작업적 감각의 상태를 거론하기 위해 든 예이다. 크게 보거나 넓게 보았을 때의 저 바다는, 좁게 보았을 때 두 바다 물길의 만남을 담고 있

다. 만남은 크고 넓게 볼 때의 현상이지만 저 바다가 단지 관조의 바다가 아닐 때 두 겹 세 겹 네 겹의 바다 물길은 각각의 사투를 벌이며 질서를 찾는다. 질서는 대체로 종료의 시점을 의미할 뿐이라서 사투를 목격하고 감각한 이에게 질서와 평정심만을 종용한다는 건 나 이 들을 강제하는 바와 다르지 않을 테다. 어쩌면 그로부터 2악장을 떠올린 이유가 아직도 여전히 그가 젊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는 세밀한 게 아니라 예민한 거고 화면에 레이어를 쌓아 올리고 올리다가 혹은 뭉개어질지언정 스스로 뭉개지는 않는다. 이미지도 태도도 마찬가지다. “내게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자연성을 계속 이렇게 수집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나이 들을 유예한다. 이쯤 되니 화가로서 책임지는 태도에 구체성이 더해지는 듯하다. 다음은 비평의 어휘보다 근사한, 작가의 말이다.

작게 본다는 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대상은 없어지거든요. 방향성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방향성이 쌓이면서 풍경이 돼요. 자연이 되고.

공부는 입을 틀어막고 우는 울음⁴

때론 작가의 말을 듣고 또 돌아와 녹취를 풀며 남길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구상과 실현이 각각의 세계로 쪼개져 있거나 하나는 거짓, 다른 하나는 진실이라기보다 다만 사실로서 현실에 자리하여 사물일 따름일 때 등. 성필하는 말에 능하지 않다고 했고, 작품도 찾아가는 중이라 했다. 그러나 복기하다 보니 그의 지금을 오롯이 남겨주고 싶었다. 그로부터 남는 것들을 간취해서다. 그가 이 자리에 초대된 건 2024년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 공모 대상 수상자이기 때문인데, 삶의 어떤 국면에 ‘호명’이란 참 뜻깊고 또 호명이 있기에 살게 만든다. 여전히 나는 짓궂어서 행복의 나날을 짐짓 휘방한다. 어느 시인이 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남긴 말은 인상적이다. 삶과 문학에 임할 때의 깨우침은 “모든 공부는 입을 틀어막고 우는 울음 같은 것”이라고 한다. 모두, 입을 틀어막고 울어 보았을까. 우리가 그러하듯, 울음과 배움이 성필하에게 굳은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음 악장을 기다린다.

- 1 성필하는 그때 당시 보이는 풍경들이 다 자기 연민이라는 생각에 그런 것에 접근을 하고 싶지 않기 위해 본인과 분리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싶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시기가 이 시기와 맞물린다. 2025년 8월 13일 성필하 작가와의 대화에서 옮긴다. 이하 큰따옴표로 처리한 부분은 대화에서의 인용에 해당한다.
- 2 세필이나 극사실과 관련해서는 차후 비평이 거둬되면서 관례화될 소지가 있는 지점이기에서 성필하의 어조를 지면에 남긴다. “저는 극사실적으로 절대 그리지 않아요.”
- 3 미처 본문에 다 담지 못했으나 그는 최근 자연의 시간대를 반영한 색연구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자연의 틈을 포착하는 감각의 연장선에 색연구가 함께 한다.
- 4 이성복, 「세상과의 연애-제4회 소월시문학상 수상 소감」, 『나는 왜 비에 젖은 석류 꽃잎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했는가』, 문학동네, 2013, p. 155.

Landscapes and Fine Lines

Kim Hyunju, Independent Curator

Second Movement

When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I often find myself drawn to the second movement. If the first movement presents the full face of a composition, its first impression, then the second movement sometimes arrives like a profile or even the view of a figure turned away. Viewing Seong Pilha's works, I was reminded of that second movement. I imagine him at the moment when the first movement gives way to a new phase, unfolding into something different. This exhibition spans works from around 2020 to his most recent pieces. One could, upon request, also see earlier works, but our conversation centered on those included here. The association with a second movement arises not only from the role such a passage plays in music, but also from the impression that Seong is heading toward his next stage. He advances toward the next moment, the next occasion. In this way, he lives very much in the active voice. If the second movement opens through listening, then visually it is like following a young man riding a bicycle. In searching for what comes next, he chose the bicycle for its pace and particular agility. Few things are better suited to opening side paths. Pioneering may sound grand, but when it is the work of a painter, it need not always be so. The painter's task may appear modest, yet at its conclusion it compels us to think differently. And so I offer these words to those who, like me, will look closely at his works and return to them again and again in thought.

The turning point came in the late 2010s. He moved away from a period when he himself was the subject of the work and turned outward. He set himself the task of distancing from the "self-pity" he sensed in the qualities of the landscapes he observed and experienced.¹ One may wonder what it means for a young artist's gaze to overlap with self-pity, but leaving that question aside, it is clear that the works presented in *When Time Expands* belong to a world beyond that overlap. To reach that external world, pared down and refined, he walked and cycled through Daebu Island in Gyeonggi Province, along the Musimcheon Stream in Cheongju, and across the outskirts of Chuncheon. Yet for him, Daebu, Cheongju, and Chuncheon are not definitive places. The world to be seen and experienced is not bound to these specific locations but exists everywhere. The issue lies not in the name of a place, but in the span of time required for the points he reached to return to him as points of resonance. He chose a method of subtracting the reasons why certain things became special objects to him. He described these periods as "a kind of training to separate objects from personal imagery." If self-pity was the first word that stirred curiosity, then responsibility is the word and the stance that followed. Speaking of his responsibility as a painter, he also spoke of

breaking away from habit. My earlier remark that "he lives in an active voice" ultimately finds its grounding here.

A Life in the Active Form

At first glance, Seong's works appear to be landscapes. I asked him why, in his vocabulary, "nature" has taken the place of "landscape." After all, landscape is itself the results of deliberate intervention, as is landscape for a painter. This is not to dismiss the role of landscape or to undervalue its outcomes. Rath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his landscapes are expressed as "nature." Understanding this distinction deepens our grasp of both his painting and the titles he gives his works. It also offers clues to the context in which series such as *When Time Expands* and *Absent Season* emerged, along with the works that articulate the sensibility between them. A few years ago, during a critical review of his work, critics suggested that he focus less on landscape and more on nature. One may infer that this advice came from the cyclical elements embedded in Seong's paintings. Seong emphasizes the "encounter" with both landscape and nature. The word encounter, of course, is broad and at times philosophical. Another word that surfaced in our conversations was "speculation." He acknowledges speculation, yet handles it with clarity in order to hold it at a distance.

He is not adept at strategies that make him appear larger than he is, but he is absorbed in conveying things with precision. Speaking about the density of his observation, he remarked: "The density in what I am painting now comes only from the extent of my observation. I think observation itself becomes density, and because I made such an effort to understand, I believe my paintings are clearer than what is actually seen." Here, observation encompasses not only the act of looking but also the process of study before the canvas. Seong is also aware that his works may appear representational.² Yet he fully recognizes the abstract processes at play in his research, which he translates as "the orientation of living beings." The orientation of nature, embodied in living forms, is layered and disrupted on the canvas until it builds up and is ultimately distilled through fine brushwork. The fine brushstrokes often noted as a distinctive feature of Seong's work are, in fact, an additional element rather than its defining trait. To call him a painter of landscapes in fine brushwork would be closer to a tactile than an essential one. For this reason, rather than foregrounding Landscapes and Fine Lines, I would situate him within nature and cycles. When I mischievously asked whether he trusted nature and his subjects or trusted himself, he offered the wise reply that he seeks balance between the two. A painter's time, built by repeating without repetition in familiar ways, is a subtle yet arduous struggle between releasing and gathering in.

Seeing Things Small

In connection with *When Time Expands*, I asked him whether time is expanding or being expanded. The difference may seem slight, but the question was meant to return to him a rightful share of cosmic time allotted to a painter. For an artist, the time of holding the brush is both a revisiting of time and an act of consent to it. “Through the process of calling forth and reciting, I sense time,” he explained. In this sense, *When Time Expands* is both the process of time expanding and its provisional result. Here lies a paradox: is expansion a matter of growth, enlargement, or progress in the quantitative sense? The most striking moment in our careful conversation came when he said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work is to see things very small.” By “seeing things small,” it was immediately clear to me that he meant seeing deeply. The time of concentration required for deep seeing expands into his own subtle sensibility, producing works that capture the sensations in between. Like people of the past, he followed the seasons. *Vernal Equinox* (2024) and *Grain Rain* (2024) reflect this, though not with the aim of rendering seasonal transitions in their crystallized form. Rather, he seems intent on sensing the gaps that arise while moving in rhythm with nature’s recurring cycles. Passing through *Absent Season* (2022), then *Study of Properties of Flow* (2023), and *between* (2024), he has now arrived at the present year. Though not fully addressed here, he has recently turned his attention to studies of color that reflect nature’s temporalities. These color investigations continue his pursuit of capturing the intervals within nature.³

Wave Texture (2025), a painting of seawater, illustrates his current sensibility. Seen broadly, the sea is vast. Seen narrowly, it is the meeting of two streams of water. Encounters appear large and expansive, yet when the sea is not merely contemplative, the double, triple, and quadruple currents wrestle with one another in search of order. Order generally signals a conclusion, so to impose only order and composure upon the one who has witnessed and sensed the struggle would be little different from enforcing the constraints of aging. Perhaps this is why the thought of a “second movement” lingers: because he is still, in many ways, young. He is not delicate but keen, layering his canvases again and again, even at the risk of smudging, yet never allowing himself to be blurred. This applies to his images as much as to his stance. “I want to keep collecting a kind of naturalness that does not become tamed by me,” he said, a desire that seems to postpone aging. At this point, his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painter takes on new specificity. Next, is the artist’s eloquent words athen any critical vocabulary:

To see small is to magnify. In other words, when that happens the object itself disappears. What remains is only orientation. That is what I am painting. As orientation accumulates, it becomes landscape. It becomes nature.

Studying is like a cry with one’s mouth covered.⁴

There are times when, after listening to an artist and transcribing the recording, I feel there is little left to set down. Not because conception and realization belong to separate worlds, nor because one is false and the other true, but because both simply exist as facts, grounded in reality, as things in themselves. Seong Pilha has said he is not skilled with words, and that he is still in the process of finding his work. Yet in revisiting our conversation, I wanted to preserve his present moment as it is, to hold on to what remains from it. His presence here is the result of having been named the Grand Prize recipient in the 25th Danwon Art Festival Artist Competition in 2024. In life, to be “called” in such a way is profoundly meaningful, for it is such calls that enable us to continue living. Mischievous as I remain, I still feign disruption of days of happiness. A poet once remarked in a literary award speech that the awakening which comes in facing both life and literature is this: “All studying is like a cry with one’s mouth covered.” Who among us has not cried that way? As we do, I hope that such cries, and such study, will form calluses for Seong Pilha. Now, I look await for his next movement.

1 Seong explained that at the time he felt all the landscapes he encountered were imbued with self-pity, and in order to avoid approaching them in that way, he worked to cultivate a perspective separated from himself. This coincided with his residency at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The following account is drawn from a conversation with the artist on August 13, 2025. All subsequent passages in quotation marks are direct excerpts from that dialogue.

2 Since aspects such as fine brushwork or hyperrealism may, over time, become conventionalized through repeated criticism, it is worth recording Seong’s own words: “I never paint in a hyperrealistic way.”

3 Although not fully addressed in this text, he has recently become interested in color studies that reflect the temporal rhythms of nature. These explorations in color extend his sensibility for capturing the intervals within nature.

4 Lee Seongbok , “Confession upon Receiving the Fourth Sowol Poetry Prize,” in *Why Could I Say Nothing About the Pomegranate Petals Soaked in Rain?* (Munhakdongne, 2013), p. 155.

시간이 팽창할 때 When Time Exp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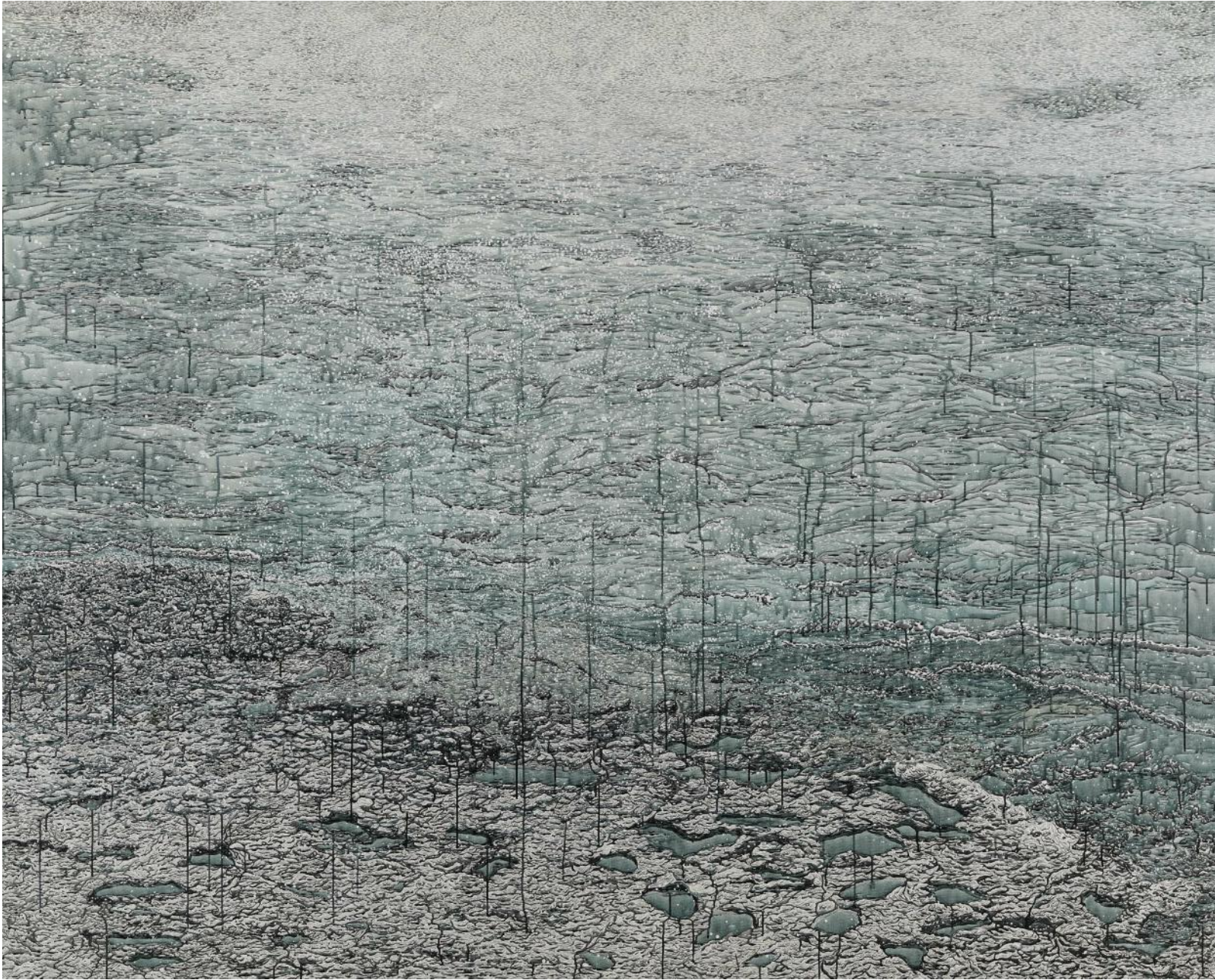




<끝자락>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50.0x60.6cm, 2021
At the Edge, Acrylic on Canvas, 50.0x60.6cm, 2021



<흐름>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62.2x130.3cm, 2022
Flow, Acrylic on Canvas, 162.2x130.3cm, 2022



<유영 游泳>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81.8x227.3cm, 2020
Swimming, Acrylic on Canvas, 181.8x227.3cm, 2020



<없는 계절1>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30.0x193.0cm, 2022
Absent Season 1, Acrylic on Canvas, 130.0x193.0cm, 2022



<없는 계절 2>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30.0x193.0cm, 2022
Absent Season 2, Acrylic on Canvas, 130.0x193.0cm, 2022



<없는 계절3>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12.1x162.2cm, 2022
Absent Season 3, Acrylic on Canvas, 112.1x162.2cm, 2022



<곡우 穀雨>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41.0x53.0cm, 2024
Grain Rain, Acrylic on Canvas, 41.0x53.0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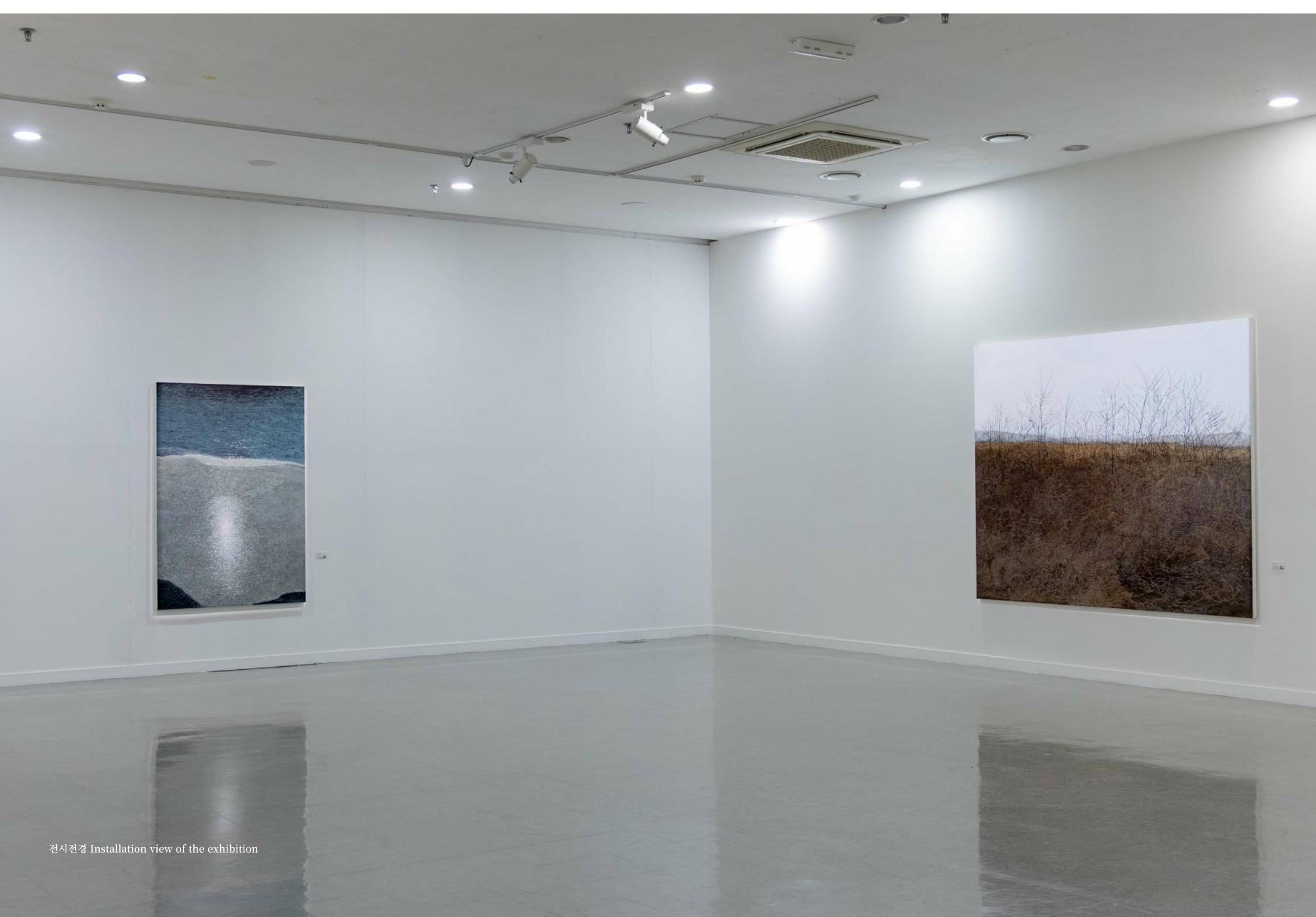


<춘분 春分>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91.0x116.8cm, 2024
Vernal Equinox, Acrylic on Canvas, 91.0x116.8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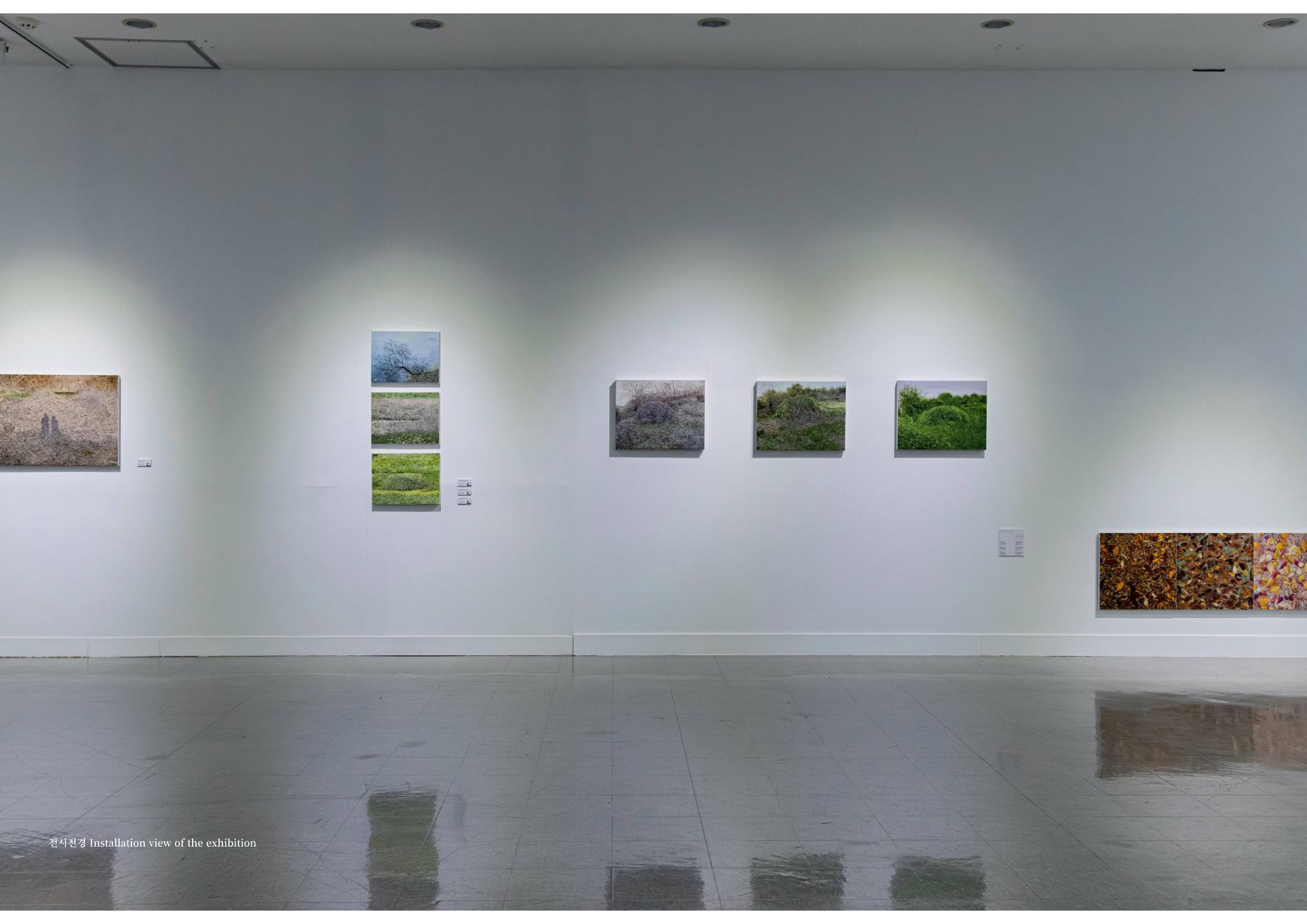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작게 본다는 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대상은 없어지거든요.
방향성 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방향성이 쌓이면서 풍경이 돼요. 자연이 되고,
-김현주 독립큐레이터와 대담 중 실필하 작가의 말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시간이 팽창할 때 >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65.1x80.3cm, 2025
When Time Expands, Acrylic on Canvas, 65.1x80.3cm, 2025



<시간이 팽창할 때>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53.0x40.9cm, 2025
When Time Expands, Acrylic on Canvas, 53.0x40.9cm, 2025





<호흡1>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45.0x45.0cm 2024
Past Breathing1, Acrylic on Canvas, 45.0x45.0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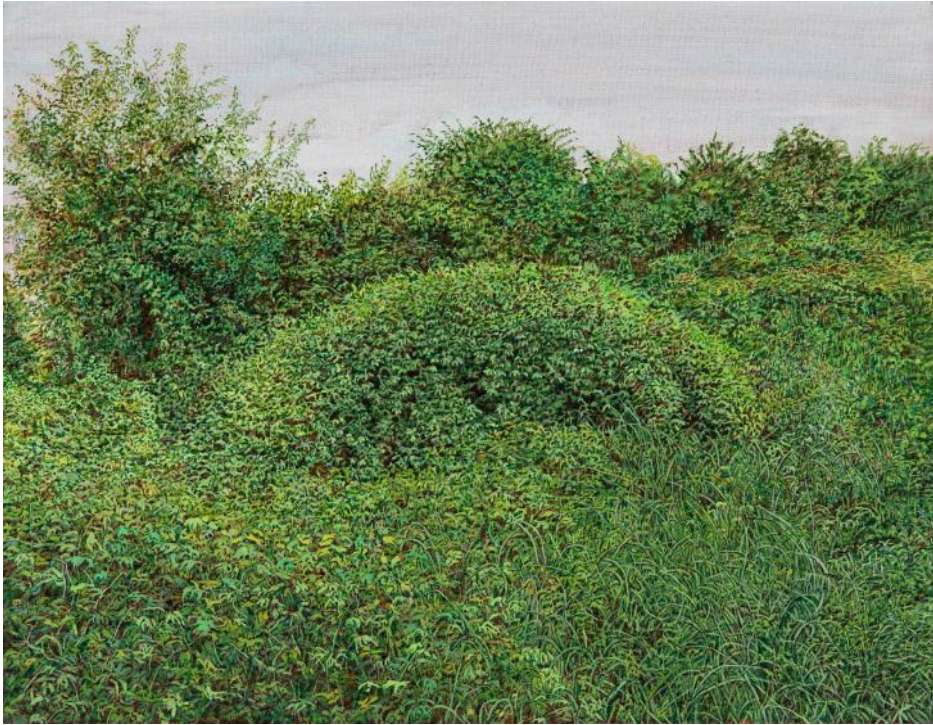
<호흡3>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45.0x45.0cm, 2024
Past Breathing3, Acrylic on Canvas, 45.0x45.0cm, 2024



<호흡2>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45.0x45.0cm 2024
Past Breathing2, Acrylic on Canvas, 45.0x45.0cm 2024



<무제>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53.0x40.9cm, 2024
Untitled, Acrylic on Canvas, 53.0x40.9cm, 2024



<사이2>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41.0x53.0cm 2024
Between2, Acrylic on Canvas, 41.0x53.0cm 2024



<사이3>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41.0x53.0cm 2024
Between3, Acrylic on Canvas, 41.0x53.0cm 2024



<사이I>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41.0x53.0cm 2024
Between I, Acrylic on Canvas, 41.0x53.0cm 2024



<스며든 시간>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53.0x72.7cm 2024
Permeated Time, Acrylic on Canvas, 53.0x72.7cm 2024



<흐름 속성 연구2>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30.0x40.0cm, 2023
Study of Properties of Flow2, Acrylic on Canvas, 30.0x40.0cm, 2023



<흐름 속성 연구1>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30.0x40.0cm, 2023
Study of Properties of Flow1, Acrylic on Canvas, 30.0x40.0cm, 2023



<흐름 속성 연구3>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30.0x40.0cm, 2024
Study of Properties of Flow3, Acrylic on Canvas, 30.0x40.0cm, 2024



<정지된 흐름>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72.7x90.9cm, 2023
Suspended Flow, Acrylic on Canvas, 72.7x90.9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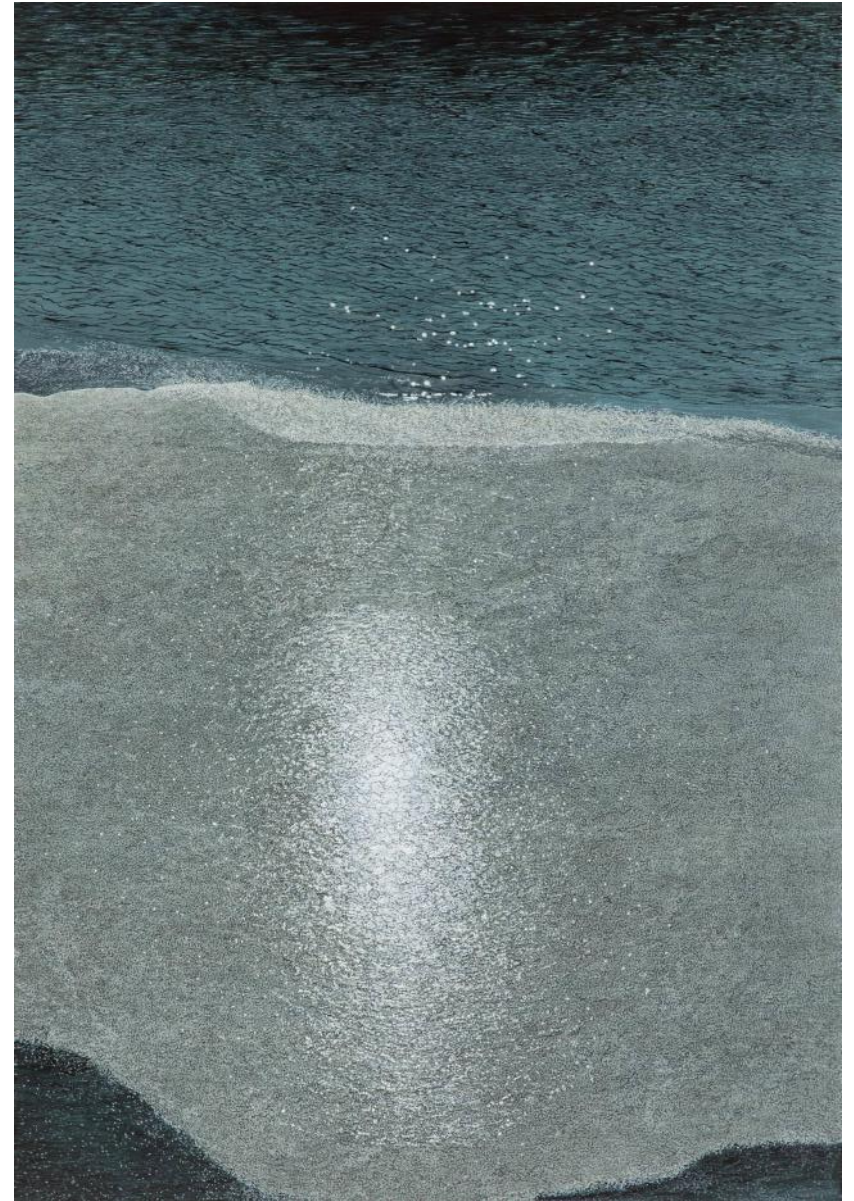
<수몰된 풍경1>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72.7x90.9cm, 2023
Submerged Landscape 1, Acrylic on Canvas, 72.7x90.9cm, 2023



<수몰된 풍경2>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30.0x162.2cm, 2023
Submerged Landscape 2, Acrylic on Canvas, 130.0x162.2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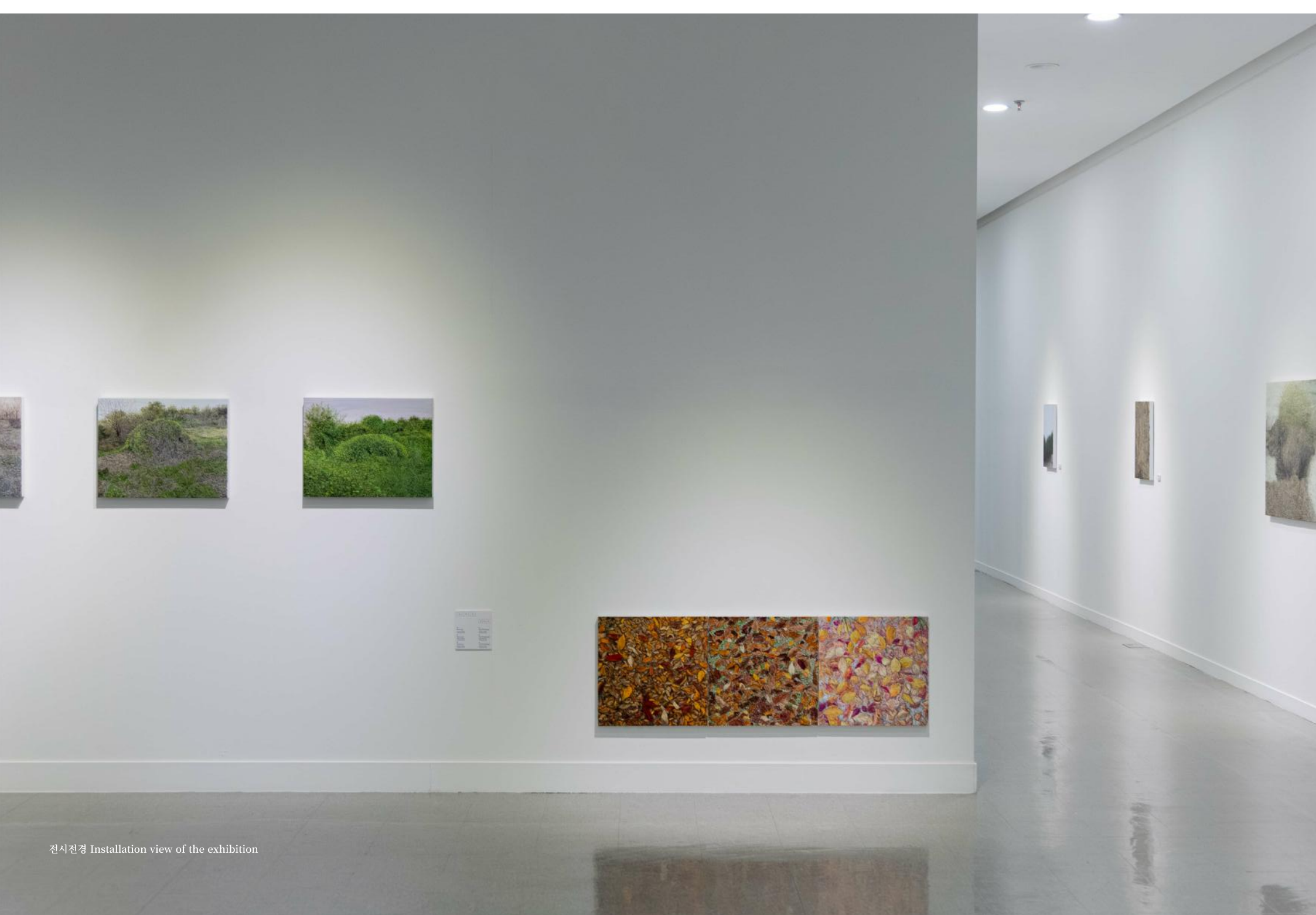
<물결살>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91.0x116.8cm, 2025
Texture of Waves, Acrylic on Canvas, 91.0x116.8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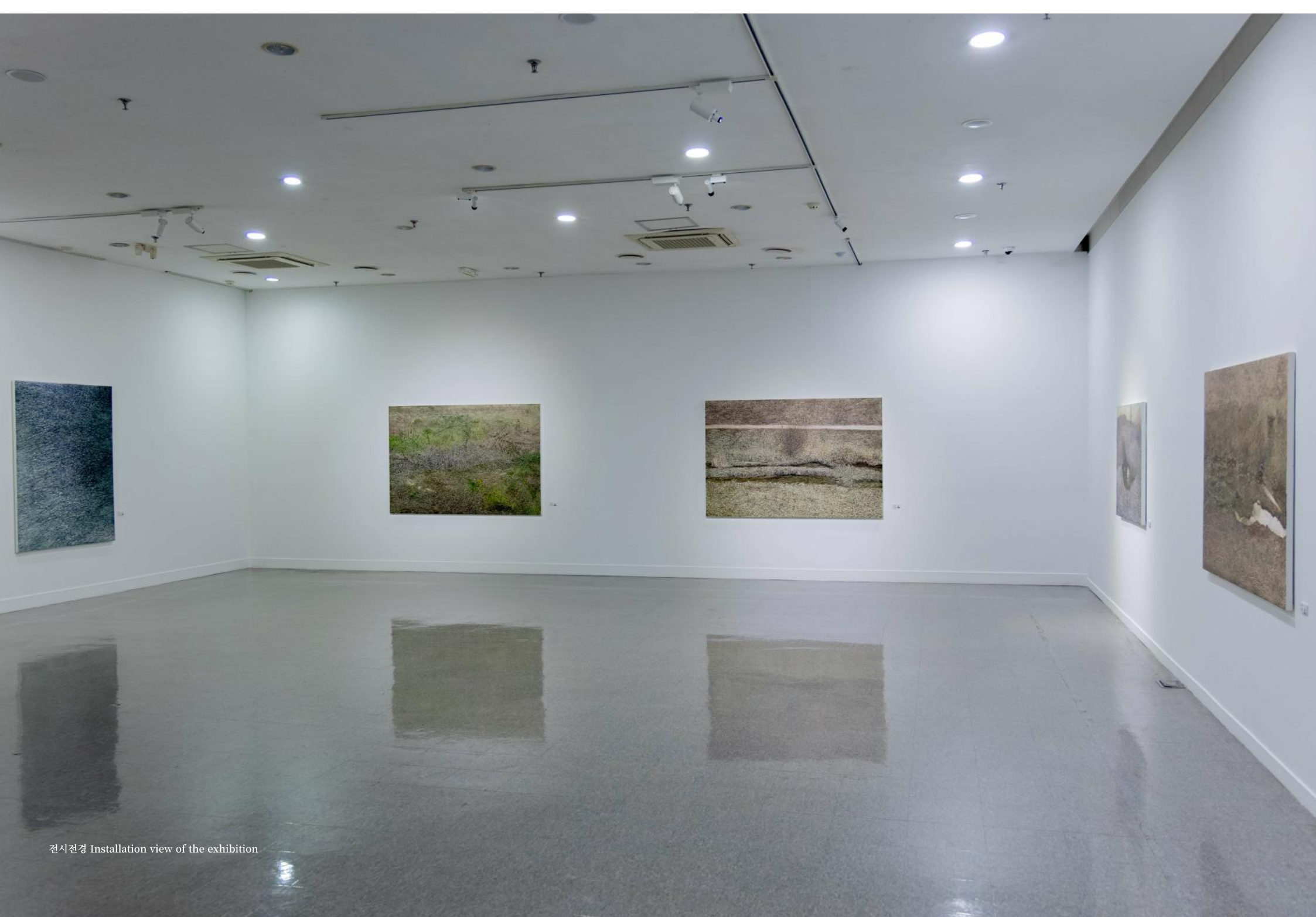
<침묵의 구조>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62.2x112.1cm, 2025
Structure of Silence, Acrylic on Canvas, 162.2x112.1cm, 2025



<기적>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81.8x227.3cm, 2025
Trace, Acrylic on Canvas, 181.8x227.3cm, 2025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인터뷰

Interview

Q1. 이번 전시는 어떤 전시인가요?

제가 그동안 자연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면서 자연들을 탐색해 왔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전시명인 《시간이 팽창할 때》라는 표현은 자연 풍경으로 그대로 바라보기보단, 오랜시간 그 풍경이 이루고 있는 개체들을 바라보면서 순환의 어떤 흔적들, 그런 것에 주목하여 화면으로 옮겨 내다보면, 풍경이 아닌 어떤 시간성으로 읽혀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화면에서 계속 감각하다 보니 풍경 너머에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조한다’ 라는게 저는 사유의 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작업 화면에서 이루어졌을 때 ‘시간이 팽창한다’ 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Q2.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제 작업 화면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대부분 어떤 명징한 계절성을 띠는 이미지들이기보다는 계절과 계절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주로 작업에 등장시키는데요. 자연의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흔적들이 어떻게 보면 뚜렷한 계절성보다는 생성과 소멸이 다 하고, 남겨진 축적된 어떤 덩어리들, 시간성이 내재된 그런 덩어리들로, 모든 계절성의 집합에 어떤 이미지처럼 느껴져서 그런 낯선 질서들이 저한테는 좀 호기심처럼 느껴져 계속 다뤄왔던 것 같고, 순환의 질서들이 많이 담긴 이미지들을 주로 작업해 왔습니다.

Q3.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있다면?

예전에 작업을 할 때 저에 대한 주제로 접근해서 작업을 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외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시선으로 외부 바라보고 있는가, 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외부에 있는 어떤 풍경들을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외부에 있는 제 시선이 닿는 것들을 작업으로 옮겨 내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에 집중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자연들을 내가 왜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라본 자연들이 화면으로 옮겨졌을 때 제가 실제로 봤던 것보다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자연성을 감각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게 되면서 자연스

럽게 그런 자연순환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생물들의 생태를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관찰하는 어떤 방식들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순환하는 과정들에서의 어떤 생태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질서들을 습득하고 자연성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4. 작품의 제작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재현을 기반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만, 작업을 하는 과정은 추상적인 형태로 작업을 풀어가거든요. 어떤 풍경적인 레이어를 쌓기보다는 그 안에 풍경을 이루고 있는 개체들의 생태 방향성 결, 운동성 같은 것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일단 눈으로 읽혀 지는 것들, 있는 그대로를 화면으로 먼저 표현한 다음 거기에 세필을 입혀서 좀 더 질서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실제로 풍경을 보는 것보다 좀 더 화면으로 봤을 때 선명한 질서들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작업마다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는데 다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작업을 계속하다보면 어떤 인식하는 것과 감각들도 계속해서 같이 축적되어 쌓여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쌓여진 인식들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에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감각적으로 뭔가 이해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좀 재미있고 흥미롭더라고요. 그 현상이라는 건 또 어떤 정서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대상이지만 제가 바라보는 어떤 현실의 정서를 화면 안에 투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Q5.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관찰하고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연을 사유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호 작용을 통해서 내가 또 자연의 어떤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회화 안에서 어떤 균형을 맞춰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가 아니라 이 이미지를 작업으로 다시 한번 감각 해보면서 또 내가 어떤 것을 만날 수 있을까가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된 것 같아요.

Q6. 관객이 주의 깊게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밀도가 높다 보니까, 관객분들도 풍경으로써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풍경 안에 있는 자연의 생태나 회화적 흐름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시게 될 텐데, 제 작품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 각자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꼭 제 작업의 어떤 특징 때문에 세밀하게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나한테 풍경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감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풍경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이런 풍경들을 봤을 때 나의 마음은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고... ‘내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보면 조금 더 제 전시를 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Q7. 이번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과 이후의 목표가 있을까요?

올해 여름이 좀 길었잖아요. 폭염도 있었고. 기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환경오염이나 매년 더 계속 더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계절의 한 부분, 제가 주로 항상 관찰을 많이 하는 어떤 시기들, 그런 계절의 이미지들을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업 안에서 다루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을 열심히 수집해야겠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동안은 제가 궁극한 이미지들, 그리고 주제에 적합한 이미지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면, 이 전시 이후에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그런 풍경 이미지들 자연 이미지들을 계속 기록적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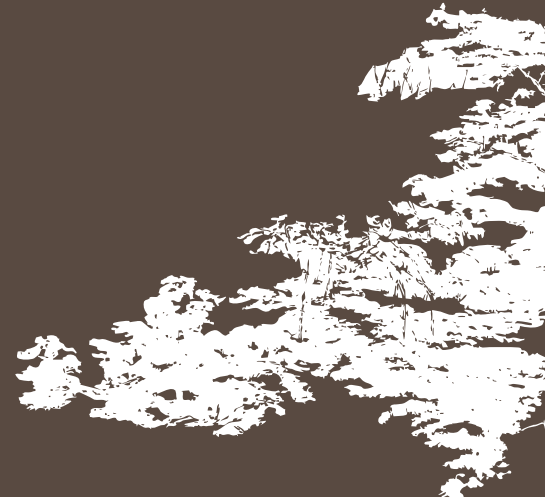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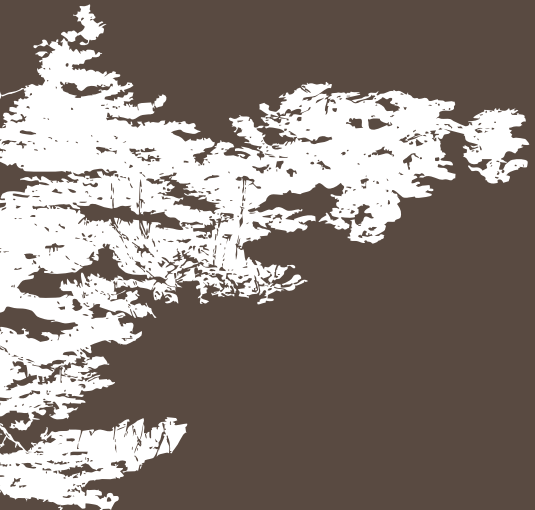


QR코드에 인터뷰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You can access the artist interviews



작가약력

Curriculum Vitae



성필하(1989년생)

학력

- 2016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 2014 청주대학교 회화학과 졸업

개인전

- 2025 <시간이 팽창할 때>, 김홍도미술관, 안산
- 2020 <A Flow Not A Flow>, 대부도 (구)떡집, 안산
- 2017 <시선 처리>,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단체전

- 2024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여기∞마주하다>, 김홍도미술관, 안산
- 2024 <숯바닥:포자는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 2023 <Hoban-Emerging Artist Awards>, 아트스페이스호화, 서울
- 2023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 수상자展>,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 2023 <물의 나라에서 In the Land of Waters>,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 2022 내일의 미술가들 <누구에겐 그럴 수 있는>,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 2021 <창작의 시간 대부하우스>, 선감어촌체험마을, 안산
- 2021 <00MHz: 진동하는 경계들>, 울산중구 문화의 거리 일대(가기 갤러리), 울산
- 2020 <작가 노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9 <오늘을 기억하는 공간 - 각자의 빈틈>, 단원미술관, 안산
- 2019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9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8 <낮선 출발>, 공간시은, 전주
- 2017 <낮선 도착>,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4 <내일의 작가展>,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레지던시

- 2023-2024 예술소통공간굿, 춘천
- 2019-2021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수상 및 선정

- 2024 제25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전 대상
- 2023 호반문화재단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선정
- 2023 겸재 내일의 작가공모 선정
- 2020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부분 선정
- 2019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작가 선정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국립현대미술관 (경부미술은행)
- 경기도미술관
- 서울특별시청 박물관과

Seong PilHa(b.1989)

Educational

- 2016 MFA, Fine Art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2014 BFA, Fine Art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Solo exhibition

- 2025 *When Time Expands*, Kimhongdo Art Museum, Ansan
- 2020 *A Flow Not A Flow*, Old Rice Cake House, Daebudo, Ansan, Korea
- 2017 *Unstable Eyes*,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4 Danwon Art Festival Selected Artists Exhibition *Here ∞ Facing*, Kimhongdo Art Museum, Ansan, Korea
- 2024 *Forest Floor: Spores Fly Toward an Unknown Destination*, Chuncheon Culture & Arts Center, Chuncheon, Korea
- 2023 *Hoban-Emerging Artist Awards*, Artspace HoHwa, Seoul, Korea
- 2023 *Gyeongjae Tomorrow's Artist Award Winners Exhibition*, Gyeongjae Jeongseon Art Museum, Seoul, Korea
- 2023 *In the Land of Waters*, Chuncheon Culture & Arts Center, Chuncheon, Korea
- 2022 *To Each Their Own*,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 2021 *Daebu House: Time to Create*, Seongam Fishing Village Experience Village, Ansan, Korea
- 2021 *00MHz: Vibrating Boundaries*, Gagi Gallery & Ulsan Jung-gu Culture Street Area, Ulsan, Korea
- 2020 *Artist Note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Empty Space in Each One*,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 2019 *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Mysterious Morn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Unfamiliar Departure*, Space Sieun, Jeonju, Korea
- 2017 *Unfamiliar Arrival*,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 2014 *Emerging Artists*, Daecheong-ho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Artist-in-Residencies

- 2023-2024 Art Communication Space Got, Chuncheon, Korea
- 2019-2021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7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Awards & Grants

- 2024 Grand Prize, 25th Danwon Art Festival Selected Artists Competition, Ansan, Korea
- 2023 Selected Artist, Hoban Foundation National Emerging Artists Art Competition, Seoul, Korea
- 2023 Selected Artist, Gyeongjae Tomorrow's Artist Competition, Seoul, Korea
- 2020 Visual Arts Creative Support Grant, Ans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san, Korea
- 2019 Selected Artist, Ansan City Culture & Arts Promotion Fund, Ansan, Korea

Collections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Art Bank)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Government Art Bank)
-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Seoul City Hall Museum Division, Seoul, Korea

E-mail : sung30g@naver.com
Mobile : +82 (0)10-9377-3504

2025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프로그램 성필하 개인전

《시간이 팽창할 때》

주최 안산시
주관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일 2025. 10.
발행처 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
발행인 이민근 안산시장·안산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김태훈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한은현 김홍도미술관장
전시기획 배수진 학예연구사
전시보조 김소현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원유준, 김지안, 김장은
시설지원 권선지, 김인수, 최순덕

도슨트 황세숙
안내 강성애, 권옥순, 김경남, 김하늘, 이경희, 이정란, 허중숙

평론 김현주 독립큐레이터

번역 한국통번역(주)
전시 디자인 파이가
운송설치 익스아트
공간공사 ㈜도시공영
사인물 제작 ㈜이엘아트
사진촬영 스튜디오 오디티, 스튜디오 독립
영상제작 스튜디오 오디티

©안산문화재단, 2025

이 책에 수록된 작품도판 및 텍스트의 저작권은 해당작가와 저자 및 (재)안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홍도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T.031-481-0505 F.031-413-5566 W.danwon.ansanart.com

2025 Danwon Art Festival Follow-Up Supporting Program for the Selected Artist-
Individual Exhibition for Seong Pilha 《When Time Expands》

Hosted by Ansan City
Organized by Ansan Cultural Foundation

Publication Date October 2025
Publication Kimhongdo Art Museum, Ansan Cultural Foundation
Publisher Lee Mingeun, Mayor of Ansan and Chief Director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Editor Kim Taehoon, CEO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Supervised by Han Eunhyeon, Director of KimHongdo Art Museum
Curated by Bae Sujin
Assistant Curated by Kim Sohyun

Operational Support Won Yujun, Kim Jian, Kim Jangeun
Facility Support Kwon Seonjin, Kim Insu, Choi Sundeok

Docent Hwang Sesook
Guide Kang Sungae, Gwon Oksun, Kim Gyeongnam, Kim Haneul, Lee Gyeonghui,
Lee Jeongran, Heo Jongsuk

Review Kim Hyunju, Independent Curator

Translation KOREA Translations Co., Ltd.
Exhibition Design Paika
Construction Dosigongyoung Co.,Ltd.
Signboards EL Art Co.,Ltd
Photography Studio Oddity, Commercial Photo Studio
Video Production Studio Oddity

©Ansan Culture Foundation, 2025

The Ansan Cultural Foundations holds the copyright of illustrations and texts in this book. Please contact the copyright holder for permission to use the illustrations and texts.

Kimhongdo Art Museum
422, Chungjang-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T. +82 (0)31-481-0505 F.+82 (0)31-413-5566 W.danwon.ansanart.com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김흥도미술관
KIMHYUNGDO ART MUSEUM



단원미술제 2025 안산
DANWON ART FESTIVAL 2025 ANSAN